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영향 요인

김혜진¹, 배연숙², 배한주^{3*}
¹창신대학교, ²청암대학교, ³계명문화대학교

The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Non-face-to-Face Classes

Hye-Jin Kim¹, Yeon-Suk Bae², Han-Ju Bae^{3*}
¹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³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1년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D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여 수집된 1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740, p<.001$), 그릿($r=0.530, p<.001$), 감성지능($r=0.656,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성지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563, p<.001$), 그릿($r=0.363,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562,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이 6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대면 수업 지속 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해당 요인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161 students across the country from March 15 to May 30, 2021, in the form of an online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the analyse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grit, and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s affecting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students were the motivation for choosing the nursing department,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cademic self-efficacy, grit, and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explained 65%. Therefore, while developing a program to improve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en the non-face-to-face classes are continued, it is necessary to use strategies to increase academic self-efficacy, gri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it is sugges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reflecting the relevant factors.

Keywords : Self-Efficacy, Grit, Emotional Intellig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an-Ju Bea(Keimyung College University)
email: bsju2@hanmail.net

Received August 9,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September 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확산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개학 연기 조치를 발표 후 2020년도 1학기에 3개월간 대학교의 대면 수업을 전면 금지하였다[1].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대면 수업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주로 비대면 수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비대면으로 강의방식이 변화되면서 학습자의 역할 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학습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학습태도, 행동, 인성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개념[3]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생존 방식이다[4]. 비대면 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많은 장점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학습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고, 내용전달이 일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라 학습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교수법과 연관된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효과[5,6], 문제해결능력[7], 셀프리더십[8]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상황과 관련된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목표설정, 과제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9]. 새로운 상황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9]. 비대면 수업시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가 되며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 간 격차를 일으키고[10]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달성 및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성과 열정으로 정의된다[11].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릿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 선행연구[12]에서 그릿은 엄격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돕고, 개인의 안녕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3] 현재와 같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그릿간에도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비하여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성적의 서열화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어[14]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능력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상황에 적합한 감성으로 조절한 다음 이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5]. 인간의 내적 심리변수로서 감성지능은 인지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주며[16], 스트레스를 낮추어 자기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간호대학 학생협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 임상실습 역시 2020학년도 1학기에 병원, 교내, 온라인 실습 순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교내실습만으로는 임상에 나갈 역량을 충분히 배울 수 없었고, 학교별로 실습 방법에 차이가 커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효과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습적 자기효능감과 그릿, 감성지능은 학습의 주체로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학습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언택팅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하여 능동적 주체로 학습상황 및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학습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한다.
3. 학습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시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설정 후 중간효과크기(f)=0.15, 검정력($1-\beta$)=.90, 유의수준(α)=.05로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수가 152명으로 나타났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7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응답이 불충분한 9부를 제외한 16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1년 3월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D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 시작 전 연구의 목적을 읽고 동의한 후 모바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작성에는 약 15분이 소요되었다.

2.4 연구 도구

2.4.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나이, 성별, 현재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2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교육 현장에서 학습상황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모종의 판단을 말한다[3].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19]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28문항으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하위 영역별

Cronbach α = .77 ~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 .89로 나타났다.

2.4.3 그릿

그릿의 측정도구는 Duckworth[11]가 개발한 그릿 측정도구를 Lee[20]가 번안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그릿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12문항으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67로 나타났다.

2.4.4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와 Law[14]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Hwang[2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16문항으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3이었고, Hwang[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다.

2.4.5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Lee등[22]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45문항으로 1점 '매우 드물게'에서 5점 '매우 자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 .93으로 나타났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른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6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시작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KSU-21-02-002-0315)을 받았으며 대상자들이 설문 전 연구목적과 방법을 읽고 동의 후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며 잠금이 있는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였고 연구 종료 후 3년 뒤 폐기될 것임을 알렸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3세로 나타났고 20대가 146명(90.7%), 30대 이상이 15명(9.3%)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144명(89.4%), 학년은 3학년이 147명(9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률을 고려해서가 75명(4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성을 고려해서가 66명(41%), 부모님의 권유로가 13명(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04명(64.6%), 보통이 49명(30.4%), 불만족이 8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2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자기주도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12 ± 0.48 , 그릿은 5점 만점 중 평균 3.01 ± 0.41 , 감성지능은 7점 만점 중 평균 5.17 ± 0.89 점,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5점 만점 중 평균 3.49 ± 0.46 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gree of Academic Self-Efficacy, Grit, Emotional Intellig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161)

Variables	Mean(SD)	Min - Max	Range
Academic Self-Efficacy	3.12(0.48)	2.00 - 4.79	1 - 5
Grit	3.01(0.41)	2.00 - 4.67	1 - 5
Emotional Intelligence	5.17(0.89)	2.00 - 7.00	1 - 7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49(0.46)	2.24 - 4.73	1 - 5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나타냈다($F=17.154,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을 고려하여'라고 응답한 경우가 '취업률을 고려하여'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501, p=.005$). (Table 2)

3.4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740, p<.001$), 그릿($r=0.530, p<.001$), 감성지능($r=0.656,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563, p<.001$), 그릿($r=0.363,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것 나타났고,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r=0.562, p<.001$) 유의한 정적상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3.5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 만족도, 선택동기를 가변수 처리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1.68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tolerance)는 .478~.905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105~2.091로 10점 이하로 분포되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0.35, p<.001$),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136, p=.0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beta=.410, p<.001$), 그릿이 높을수록($\beta=.154, p=.008$), 감성지능이 높을수록($\beta=.346, p<.001$)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명력은 65%였다(Table 4).

Table 2. Differ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F)	p
			M±SD		
Age(years)	20-29	146(90.7)	3.49±0.46	.041	.967
	over 30	15(9.3)	3.48±0.46		
	Mean±SD 23.3±6.80				
Gender	Male	17(10.6)	3.31±0.47	-1.706	.090
	Female	144(89.4)	3.51±0.45		
Grade	Third	147(91.3)	3.49±0.46	.081	.777
	Forth	14(8.7)	3.45±0.43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department	Considering aptitude ^a	66(41.0)	3.61±0.42	4.501	.005 (a>b)
	Recommendation of family	13(8.1)	3.27±0.44		
	Employment ^b	75(46.6)	3.40±0.46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7(4.3)	3.74±0.44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a	104(64.6)	3.63±0.42	17.154	<.001 (a>b,c)
	Usually ^b	49(30.4)	3.25±0.39		
	Dissatisfaction ^c	8(5.0)	3.15±0.5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Grit, Emotional Intelligence &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161)

Variable	Academic Self-Efficacy	Grit	Emotional Intellig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1			
Grit	.562(<.001)	1		
Emotional Intelligence	.563(<.001)	.363(<.001)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740(<.001)	.530(<.001)	.656(<.001)	1

Table 4. Affected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161)

	B	S.E	β	t(p)	R ²	Adjusted R ²	F(p)
(Constant)	22.561	9.144		2.467 (.015)	.661	.650	60.35 (<.001)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department	1.150	0.912	.062	1.261 (.209)			
Satisfaction with major	4.790	1.868	.136	2.565 (.011)			
Academic Self-Efficacy	0.631	0.104	.410	6.066 (<.001)			
Grit	0.640	0.237	.154	2.702 (.008)			
Emotional Intelligence	0.501	0.082	.346	6.077 (<.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형태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혼재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과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5,23] 결과와도 일치한다. 온라인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수행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2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또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예측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26]. 간호대학생은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 국가고시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18], 졸업 후에도 간호사로서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의 일원이다. 이에 새로운 지식과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기보다 도전할 수 있도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에 3.01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7,28] 결과와 유사했다.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구성요인으로 하는 그릿은[10] 갑작스러운 비대면 수업상황에서 스스로 선택을 통해 학습에 참여하게 되므로 규칙적인 학습시간관리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릿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28]. 이를 비추어 볼 때 그릿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학업과 임상실습과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규간호사들은 일을 시작할 때 막연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임상현장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잘 적응하지 못해 경력 간호사에 비해 이직률이 2배 가까이 되는 실정이다[29]. 따라서 대학에서부터 그릿을 향상시키는 것은 신규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호사들의 직무만족과 자기계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5.17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결과와 유사했다.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15]에서는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이해하기 어렵거나 흥미가 다소 낮은 학습상황에서도 정서와 기분이 안정되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7]. 따라서 감성지능은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도록 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감성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평균 3.49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의 결과와도 유사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32] 결과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이는 간호학과 지원 시에 높은 취업률을 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입학 후에는 자기주도 학습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학업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에게 이론적 지식과 임상실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과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그릿, 전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0%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23] 결과와 유사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꾸준한 끈기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여 협력할 수 있는 감성지능은 학업성취도와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 감성지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학업적 자기효능감, 그릿과 감성지능은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경으로 인해 수업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교수-학생 간의 대면 상호작용이 저하되어 이를 보완한 학습전략을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Lee, J. Kim,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pp. 567-578, Apr. 2020.
DOI :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2.567>
- [2] D. J. Lee, M. Kim,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ractices of online learning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future directio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23, No. 3, pp. 359-377, 2020.
http://journal.kamall.or.kr/wp-content/uploads/2020/09/23_3_s07.pdf
- [3] M.S.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ders and teachers," Chicago, IL: Follett Pub Co, 1975.
<https://eric.ed.gov/?id=ED114653>
- [4] R. A. Bjork, J. Dunlosky, N. Kornell, "Self-regulated learning Beliefs, techniques, and illus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4, pp. 417-444, 2013.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13011-143823>
- [5] S. J. Kang, E. J. Kim, H. J.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2, pp. 33-41, Apr. 2016.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6.7.2.033>
- [6] K. O. Choi, Y. M. Park, "The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0, No. 2, pp. 154-159, Nov. 2014.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4.20.2.154>
- [7]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28-337, Jun. 2012.
DOI: <https://doi.org/10.5392/JKCA.2012.12.06.328>
- [8] S. Y.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309-318, Mar.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3.309>
- [9]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5, No. 5, pp. 559-566, Oct. 2013.
DOI: <http://dx.doi.org/10.7475/kian.2013.25.5.559>
- [10] E. Y. Choi, J. Y. Yun,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the other behaviors taken by Nursing student during online lectur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433-441, Sep.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433>
- [11]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2] J. M. Stoffel, J. Cain, "Review of grit and resilience literature with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Vol. 82, No. 2, Mar. 2018.
DOI: <https://doi.org/10.5688/ajpe6150>
- [13] M. R. Jung, E. Jeong,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6, pp. 414-423, Jun.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6.414>
- [14] C.S.Wong, S.L.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Jun. 2020.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5] O. S. Lee, Y. G. Noh,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blem solving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2, pp. 349-358, Dec.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49>
- [16] C. M. Ko,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out among Nursing College

-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5, No. 2, pp. 120-127, Jun. 201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2.120>
- [17] K. C. Kim, A. K. Ya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university freshm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1, No.2, pp. 574-585, 201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004953#:~:text=DOI%20%3A%2010.13000/JFMSE.2019.4.31.2.574>
- [18] D. I. Jeong, Y. Eun, J.S. Kim, Y.S. Lee,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Anx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1, pp. 531-54, May.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1.531>
- [19]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20] S. R. Lee, "Effect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4.
<http://www.riss.kr/link?id=T13768279>
- [21] P. J.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7.
<http://www.riss.kr/link?id=T10865071>
- [22]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p. 74-90, 2003.
<https://www.kedi.re.kr/khome/main/webhome/Home.do>
- [23] H. S. Oh, "Influence of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8, pp. 311-321, Aug.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8.311>
- [24] A. Y. Wang, M. H. Newlin, "Predictors of web-student performance: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reasons for taking an on-line cla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18, No. 2, pp. 151-163, 2002.
DOI: [https://doi.org/10.1016/S0747-5632\(01\)00042-5](https://doi.org/10.1016/S0747-5632(01)00042-5)
- [25] C. S. Sh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4, No. 2, pp. 17-25, May. 2018.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18.4.2.17>
- [26] J. Cha, J. H. Kim,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 Mixed Methods Stud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1, pp. 25-35, Feb.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1.25>
- [27] S. Lee, J. Kim, "Growth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Onlin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pp. 567-578, Apr. 2021.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2.567>
- [28] I. Lee, M. K. Jeon, M.Y. Lee,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7, No. 3, pp. 298-306, Dec.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98>
- [29]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5 Annual report.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pp.150-155, 2016.
DOI: <https://doi.org/10.4040/jkan.2014.44.6.682>
- [30] N. H. Kim, S. Y. Park,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3, pp. 194-202, Mar.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194>
- [31] M. H. Jeong,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9, pp. 302-314, Sep.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9.302>
- [32]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61-270, Oct.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61>

김혜진(Hye-Jin Kim)

[정회원]



- 2014년 9월 : 창원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20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2021년 2월 :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1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조산학, 인간중심간호

배 연 숙(Yeon-Suk Bea)

[정회원]



- 2015년 2월 : 경상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3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수료)
- 2018년 4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대사증후군, 비만

배 한 주(Han-Ju Bea)

[정회원]



- 201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MBSR(마음챙김 명상)